

범어사 간행 『영사단지』의 성격과 조엄

이정은*

• 목 차 •

- I. 머리말
- II. 『영사단지』의 내용과 특색
- III. 『영사단지』의 성격
- IV. 맺음말

* 국립해양박물관 선임 학예연구사.
© 『大覺思想』 제33집 (2020년 6월), pp.227-253.

한글요약

부산 금정구 범어사는 동래부사 조엄(趙巖, 1719~1777)의 제사를 주목적으로 하여 1808년 『영사단지(永思壇誌)』를 간행하고 같은 해에 그를 기리는 제단과 불망비를 세웠다.

다만 이 문헌은 조선후기 불교사찰에서 거행된 유교 제향 의식집(祭享儀式集)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는 자료이다. 19세기 초 조선승려의 시각으로 바라 본 사찰경제의 실태는 물론이고 조엄의 조선통신사 수행 활동마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찰은 범어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영사단지』를 처음으로 분석하여, 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조선후기 범어사의 단편적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글이다.

주제어

범어사, 영사단지, 조엄, 조선통신사, 동래부사, 유교 제향 의식집, 종이부역, 순조 8년(1808), 고구마, 부산

bu ritual, which is written in ink, shows that it is written in the format of Euigwe (ritual protocol), demonstrating that it is the book that contains the Confucian ritual ceremony held in Buddhist temples.

Key words

Beomeosa, *Yeongsadanji*, Cho Eom, Joseon Tongsin, Dongraesa, Confucian ancestral rites, paper compulsory labor, 8th year of Sunjo(1808), Sweet Potato, Busan

Abstract

Yeongsadanji of Beomeosa Temple and Cho Eom

Lee, Jeong-eun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Curator)

Beomeosa temple in Busan wrote a transcribed version of *Yeongsadanji*(永思壇誌) for the purpose of leaving the public virtue of Cho Eom ((趙職, 1719~1777), and in the same year they set up a monument for him.

The main part of the book is about achievements of Cho Eom, who consistently eliminated taxes and forced labor imposed on temples. From the records of Beomeosa village man, Ahn Cheo taek and Cho Eom's descendant, Cho Jung rye to Beomeosa monk Lim Chu's preface and monk Toe eun's epilogue, the achievements of Cho Eom are repeated. It is in contact with the forced labor imposed on Beomeosa, and one of the things to look out for is about paper producing forced labor. It is the most unfair phenomenon because it is mentioned four times with specific amounts, and it is supported by the remains of the cultural assets used in the making of paper (Busan Bomasa Mokjo (釜山 梵魚寺 木槽): a pipe made of wood in Beomeosa Temple (1757)). In addition, monk Lim Chu recorded at the end of this book is presumed to have a clear perception of Joseon Tongsinsain the temple, writing about Cho Eom's Gyemi Dispatch (癸未通信使行) in 1763.

Yeongsadanji began writing in early July 1808, and finished its production ranging from the actual ritual space to monument in early winter of the year.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front cover, Dongrae

I. 머리말

부산 금정구 금정산에 자리한 범어사¹⁾는 부과된 세금과 부역을 면제 시켜 준 동래부사 조엄(趙職, 1719~1777)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1808년 『영사단지(永思壇誌)²⁾』를 간행하였다. 『영사단지』의 영사(永思)란 ‘오래도록 생각하여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조엄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 정례회를 위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의미가 책 제목으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영사단지』의 주인공 조엄은 1757년 7월부터 1759년 1월까지 동래부사를 수행하고 이후 1763년 조선통신사 정사로 활약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통신사 수행 중 일본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와 재배법을 국내로 들어온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다.³⁾

이 글은 범어사가 소장한 『영사단지』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 책이 간행된 경위와 조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고이다. 이 내용을 통하여 조선후기 범어사 사찰에서 전개된 공권력이 사찰 경제에 미친 영향 등과 함께 동래부사 조엄의 단편적인 문헌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자료로써 의의를 가진다.⁴⁾

1) 부산 금정구 금정산에 위치해 있는 범어사는 678년,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왕 18년에 창건된 고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이자 선찰대본산 금정총림으로 8대 총림 중 하나이다.

2) 『영사단지』, 필사본 1책, 1808, 28.7×21.4cm, 범어사 정보박물관 소장.

3) 노성환, 「조선통신사와 고구마의 전래」, 『동북아문화연구』 23권 23호, 2010, pp.540-551.; 원주시 문화예술과, 『조엄 생애와 고구마 전래』, 원주시, 2016, pp.10-14.

4) 『영사단지』는 본고 이전 필자에 의해서 2017년 범어사 정보박물관에서 기획한 ‘돌에 새겨진 범어사’ 특별전에서 200여년 만에 처음 공개하였다. 특별전에는 이 문헌의 표지를 전시하고 단편적이지만 이미지 몇 컷과 짧은 설명글을 도록에 수록한 바 있다. 당시 특별전을 준비하며 경성대학교 김철범 교수님에 의해 범석의 금석문을 일괄을 탁본하고 해제와 번역이 일부 시행되었다. 이후 필자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범어사 3.1운동과 명정학교’를 기획하면서 범어사 승려의 독립운동과 독립자금 운영이 조선후기부터 시작된 범어사 사찰계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한 바 있다. 더욱이 본 자료는 동래부사가 사

II. 『영사단지』의 내용과 특색

1. 조업과 『영사단지』의 간행

조업은 풍양조씨로 자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永湖),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752년(영조 28)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1757년(영조 33)에 동래부사⁵⁾, 이듬해인 1758년(무인년)에는 경상도관찰사⁶⁾로 임명되었다. 그는 1763년(영조 39) 조선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다녀왔고 그 때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와서 동래(지금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제주도에서 재배하게 하였다. 사행 이후 그는 평안도관찰사⁷⁾와 공조판서⁸⁾ 이조판서⁹⁾ 등을 역임하였다.

아래 내용은 조업이 동래전역에 선정을 베풀었던 기록이다.

우리 동래부에 부임하셔서 조세로 거둔 현물을 모아 보관하고 이를 중앙에 수송하기 위해 해로 이용이 쉬운 동래에 조창(漕倉)을 창설할 때 연해의 백성들이 다시 세금을 내는 원성이 없었다. ... 중략 ... 군대의 폐막을 고쳐 없애시니 먼 산골의 사람들도 살아갈 희망을 기다리던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¹⁰⁾

우리 사찰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히 경악할 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과 수심에 들게 한 것들과 해결이 필요한 폐막들을 일체 바

찰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고찰 내용이 미진한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다듬어 확장해 보겠다.

- 5) 『영조실록』 90권, 1757년(영조 33) 7월 16일 병오 1번째 기사.
- 6) 『영조실록』 106권, 1766년(영조 41) 11월 14일 을유 2번째 기사.
- 7) 『영조실록』 116권, 1771년(영조 47) 4월 25일 을미 3번째 기사.
- 8) 『영조실록』 104권, 1765년(영조 40) 9월 1일 경술 3번째 기사.
- 9) 『영조실록』 100권, 1763년(영조 38) 10월 27일 병진 1번째 기사.
- 10) 『영사단지』 : 주상(순조) 9년 무진(1808) 10월 20일 고을사람 안처택(安處宅)의 기록.

참고문헌

1. 문헌자료

『古文眞寶』

『東師列傳』

『肅宗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嶺南營誌』

『海槎日記』

『永思壇誌』, 1808, 범어사 정보박물관

범어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안내도」, 1923, 부산박물관소장

범어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안내도」, 1947, 개인소장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부산의 금석문』, 「금정구 금석문」,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2.

기장군, 『기장 옛길 학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범어사 정보박물관, 『돌에 새겨진 범어사』, 범어사 정보박물관 특별기획전시 도록, 2018.

2. 범어사의 문화재

<부산 범어사 목조>, 1757, 범어사 정보박물관.

<관찰사 홍우길 고막영혁 만세불망단>, 1860, 범어사

<부사 정현교 영혁폐막 만세불망단>, 1860, 범어사

<부사 정현덕 영세불망비>, 1871, 범어사

<통정대부 참서관 장호진 영세불망비>, 1903, 범어사

<범어사 사적비>, 1923, 범어사

IV. 맺음말

범어사는 동래부사 조엄을 그리며 『영사단지』 1책을 필사로 만들었다. 지금으로부터 210년 전에 범어사에서 만든 이 책은 그 간행 목적이 분명했다. 조엄이 사찰에 부과된 세금과 승려의 부역을 면제해준 공로를 범어사는 잊지 않았고, 이 일을 후일에도 지속적으로 남길 목적으로 책을 제작하고 같은 해에 그를 기리는 제단과 비석을 세웠다.

Ⅱ장에서는 『영사단지』의 간행 연유와 부처님 도량에서 유교 관리를 추모한 책의 내용과 특색을 살펴보았다.

Ⅲ장은 본 논문의 핵심주제인 조선후기 사찰 범어사 승려의 부역과 이를 철폐한 조엄의 역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록이 명확하지 않았던 종이 부역의 실체와 역사를 기억하는 현존하는 범어사의 문화재 <부산 범어사 목조>를 통하여 당시 범어사 승려의 노역도 짐작하기에 충분하였다.

『영사단지』는 재미통신사의 정사로 일본을 다녀온 조엄의 단편적인 문헌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기초자료로써 그의 사행 직전 역임한 경상도관찰사와 동래부사직을 통해 동래지역에서 차출된 재미통신사행원과의 관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로잡으셨다.¹¹⁾

방비를 원대하게 생각하시되 피폐한 사찰을 구해 주셨으니,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택이 넘쳐 가난한 승려들에게까지 미쳤다. 지금 사찰에 거주하는 자들은 비록 공의 얼굴을 모두 보지는 못했지만, 크신 은덕을 전해들은 것이 마치 귀에 쏟아지는 우레 소리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감동되어 별도로 이 제단을 설치하여 길이길이 송축하는 곳으로 삼고자 한다.¹²⁾

그는 동래부의 이자증식 폐단을 조치하고 좌수영의 지창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군대의 폐막을 고쳤고 이로 인해 승군이 여섯 초에서 넷 초로 감축하였다.

범어사의 안정은 조엄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서문과 발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찰의 부흥을 공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

멀리 떠난 승도들이 다시 범어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변방의 군대를 갖추어서 중생들이 마음이 편하게 되었다. … 중략 …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찰이 크게 50여 년 동안 번성하여 아무도 겨를 자가 없었다.¹³⁾

2. 『영사단지』의 구성

이 책은 1책으로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영사단지』를 기록한 이유를 수록했다. 둘째는 조엄의 영사단을 그림으로 그려 넣고 단비전면(壇碑前面)과 후면에 들어갈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적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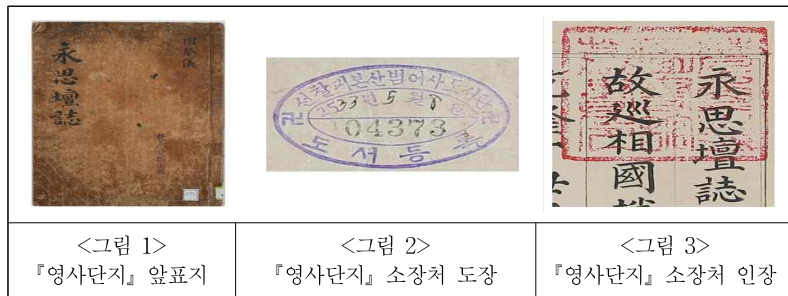
11) 『영사단지』 : 무진년(1808) 초겨울 상한(上澣) 부종수교(扶宗樹敎) 선교양종팔로총림(禪敎兩宗八路叢林) 승풍규정도총섭(僧風糾正都摠攝) 금파(金波) 임추천유자(任秋天游子)의 기록.

12) 『영사단지』 : 가경(嘉慶) 13년 무진(1808) 7월 상순, 조중려(趙重呂)의 기록.

13) 『영사단지』 : 무진년(1808) 초겨울 상한(上澣) 부종수교(扶宗樹敎) 선교양종팔로총림(禪敎兩宗八路叢林) 승풍규정도총섭(僧風糾正都摠攝) 금파(金波) 임추천유자(任秋天游子)의 기록.

다. 셋째는 유교의 제향의식에 따라 상세한 음식재료와 배치도까지 그림과 글로 나열하고 있다.

『영사단지』는 단비전면(壇碑前面)과 후면기록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808년 7월 초에 집필을 시작하여 제단과 단비까지 모두 그해 초겨울에 조성을 마쳤다.¹⁴⁾ 『영사단지』앞 표지를 넘기면 1989년(불기 2533) 5월 8일 선찰대본산 범어사 도서관의 도서등록번호 04373가 선명하게 찍혀있고 내지 첫 장 상단에는 ‘범어사 도서관 장서인(梵魚寺 圖書館 藏書印)’방형의 백문방인(白文方印)을 찍었다. 현재는 2003년 개관한 범어사 정보박물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표 1> 『영사단지』 구성

순서	내용		일자	참여 명단
1	영사단지(永思壇誌)		주상(순조)9년 무진(1808) 10월 20일	안처택(安處宅)
2	영세불망비	단비전면 (壇碑前面)	가경(嘉慶)13년 무진(1808) 7월 상순	변지순(卞持淳)
		후면기록 (後面記)		조중려(趙重呂) 감역: 취흡 70, 75대 승통 역임.

14) 앞뒤 표지와 소장처 도장을 제외.

밖에 수차(水車) 두 대가 있어 모양이 소차(纜車)와 같은데, 물결을 따라 스스로 돌면서 물을 떠서 통에 부어 성중으로 보낸다. 보기에 매우 괴이하므로 별파진(別破陣) 허규(許圭)·도훈도 변박을 시켜 자세히 그 제도와 모양을 보게 했다. 만일 그 제작 방법을 옮겨다가 우리나라에 사용한다면, 눈에 물을 대기에 유리하겠는데 두 사람이 꼭 성공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³³⁾

아침에 개고 늦게 비가 왔다. 밤에는 번개가 몹시 치고 비가 쏟아졌다. 서남풍이 불었다. 일기도의 배 위에서 잤다. ... 중략 ... 수록의 각 站을 지날 때 명산대천 중에 좋은 풍경을 골라 변박을 시켜 그리게 하였는데, 그 초본이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를 시켜 앞에서 자세히 수정하게 하였다.³⁴⁾

조엄은 사행에 있어서 회화부문의 역할에 각별한 관심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이러한 섬세한 성향은 조엄의 『해사일기』에 군데군데 보인다. 조엄은 동래사람 변박으로 하여금 지도를 모사하게 시키거나 수차(水車) 제도를 관찰하여 그것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산수자연을 그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조엄은 1년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동래부사를 역임하며 동래의 백성을 두루 잘 살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재를 알아봤던 인물이었다.

이 문헌에 보이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을 통하여 범어사 내에서도 조선통신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고 조엄이 1763년 계미통신사의 정사로 활약한 것 또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趙曦, 『海槎日記』[三] 甲申 1月 27日(己卯), “望見浣浦 靑湖四圍 白雉浮江 樹林蔥蔚 樓臺隱映 城外有水車二座 狀如纜車 逐波自轉 酌水注桶 灌入城中 見甚奇怪 使別破陣許圭·都訓導卞璞 詳望其制樣 如能移其制作於我國而用之 則其於灌田之道 可謂有利矣 未知兩人可能必成否也”

34) 趙曦, 『海槎日記』[五] 6月 8日(戊子), “朝晴晚雨 夜大電雨注西南風 留壹歧島船上 所經水陸各站 名山大川中有勝景處 曾使卞璞模畫之 草本多未成者 故使之在前 詳加釐正 亦可謂消寂之一端矣”

이 기록은 동래부의 민심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조엄은 동래부사 수행 당시 범어사 승려뿐만 아니라 동래부 백성들의 어질었던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11차 조선통신사인 계미사행은 수행원이 거의 500인에 가까운 대규모의 사행이었다. 조엄은 동래부사 경험을 통하여 계미사행 수행원으로 그룹에 능했던 동래 사람 변박(卞璞)²⁹⁾을 3기선의 기선장(騎船將)으로 뽑아 데리고 갔다.³⁰⁾ 뒤에 다시 도훈도(都訓導)로 교체하여 일본의 에도(江戸, 도쿄의 옛 이름) 행선에 수행토록 했던 사실이 있다.³¹⁾ 공적인 활동을 주로 남긴 변박은 조엄의 동래부사 수행직후 이력이 나타나는 동래지역 무관이다.

비 오고 서남풍이 불었다. 좌수포에서 머물렀다. ... 중략 ... 대마도 지도와 인쇄된 일본 지도를 구하여 변박으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였다. 변박은 동래 사람으로 문자에 능하고 그림을 잘 그리어, 3기선(三騎船)의 선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다.³²⁾

맑음. 사시에 배를 띄워 저녁에 정포(淸浦)에 닿아 묵었다. ... 중략 ... 성

29) 향토문화대사전 <변박> 참조 : 동래부에서 태어난 변박(卞璞)의 자는 탁지(琢之), 호는 술재(述齋)이다. 1760년에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 상황을 소재로 그린 <부산진 순절도(釜山鎭殉節圖)>(보물 제391호)와 <동래부 순절도(東萊府殉節圖)>(보물 제392호)가 있다. 1763년에는 계미사행의 조엄에 발탁되어 일본사행에서 화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사행 직후인 1765년에는 동래부 동헌의 대문 이름인 ‘동래 독진 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 현판 글씨를 썼고, 동래읍성 남문 돌다리 준공을 기념하는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부산광역시 기념물 52호)의 비문을 남겼다. 1783년에는 왜관의 구조와 배치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초량 왜관도>를 그렸다.

30) 趙曦 『海槎日記』[一], 癸未 10月 10日(癸巳), “雨西南風 留佐須浦 ... 중략 ... 得馬州地圖及日本印本地圖 使卞璞模寫 璞是萊州人 而能文字善寫畫 以三騎船將率來者也”

31) 趙曦 『海槎日記』[三], 甲申 1月 24日(丙子), “三騎將卞璞 以能畫與都訓導相換 隨行於江戸”

32) 趙曦 『海槎日記』[一] 10月 10日(癸巳), “雨西南風 留佐須浦 ... 중략 ... 得馬州地圖及日本印本地圖 使卞璞模寫 璞是萊州人 而能文字善寫畫 以三騎船將 率來者也”

			시암: 지유(志有) 91, 94대 승통 역임. 화상: 도안(道眼) 95대 승통 역임. 감역: 김성언(金聲彦) 각인: 배성윤(裴成允) 석수: 조중일(趙仲一)
3	영사단지서문(永思壇序)	무진년(1808) 초겨울 상한(上澣)	임추(任秋)
4	제향의식	영사단지(永思壇圖)	
		단상진설도(壇上陳設圖)	
		축문(祝文)양식	
		홀기양식	
		현판과 집사를 추천하는 절차	
		거행절차	
5	영사단지발문(永思壇誌跋)	무진년(1808) 초겨울	퇴은(退隱)

<표 1> 『영사단지』 구성에서 제시한 순서에 맞춰 다시 살펴보겠다. 단, 서문에서 밝혔듯이 제향의식은 제외하겠다.

1. 첫 내지는 ‘주상(순조) 9년 무진(1808) 10월 20일 고을사람 안처택(安處宅)’이 지은 것으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조엄을 옛 순상(巡相)으로 표현하며 이름이 엄(嚴)이고, 자는 명서(明瑞), 호가 영호(永湖)인데, 풍양백(豐壤伯)의 먼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조엄의 업적이다. 동래부의 세금과 군대 조치에 대한 감사함을 작성하였고 더불어 범어사에서 좌수영에 납부하는 지창전(紙倉錢)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노역 일체를 감면해 준 것에 대한 은혜도 잊지 않고 적고 있다. 셋째는 1763년 계미통신사행(癸未通信使行) 활동으로 일본에 그의 명성과 업적이 조야(朝野)에 알려지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다. 동래부 단사(壇祀)의 제향이 초겨울 상순에 거행되기 때문에 승려들도 이를 따라 제사를 올린다고 쓰고 있다. 또한 비석이 파모되지 않고 범어사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조공의 은택도 이와 함께 영원할 것이니, 추모하여 생각하는 자리에 유감이 없을 것이라고 쓰고 있

다.

2. 일명 불망비로 불리는 조엄의 비에 관한 기록이다. 단비전면은 전 첨지(僉知) 변지순(卞持淳)이 쓴 ‘순상국조공휘엄혁거사폐영세불망단(巡相國趙公諱曠革祛寺弊永世不忘壇)’으로 『영사단지』와 1808년 동일년에 조성된 실제 비문 전면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

<p>변지순의 기록</p>	<p>『영사단지』</p>	<p>단비전면</p>	<p>전면탁본</p>
<p>『영사단지』 후면기록</p>		<p>후면기록</p>	<p>후면탁본</p>
<p><그림 4> 『영사단지』중 「영사단도」</p>		<p><그림5> 불망비, 1808, 범어사</p>	<p><그림 6> 불망비 탁본, 2017, 범어사 성보박물관</p>

『영사단지』에 그려진 단비는 중앙을 비워둔 상하좌우 형식으로 단비의 제목을 나눈 구성이다. 상단은 ‘순상국조공(巡相國趙公)’을 기록하고 좌우는 각각 ‘혁거사폐(革祛寺弊)’, ‘영세불망(永世不忘)’, 하단에는 ‘단(壇)’을 써넣었다. 반면 실제 세워진 단비는 ‘순상국조공휘엄혁거사폐영세부망단(巡相國趙公諱曠革祛寺弊永世不忘壇)’으로 『영사단지』와 1808년 동일년에 조성된 실제 비문 전면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계미년(1763)²⁷⁾에 배를 타고 일본의 통신사로 가서는 미개인들에게 위엄을 보이니 미천한 사람들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결국 명성과 공적이 조야(朝野)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한 줄의 짧은 기록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조엄의 『해사일기(海槎日記)』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동래는 내가 정축년(1757, 영조 33)과 무인년에 다스리던 고장인데, 고을 사람·장교·아전·백성·중들 수백 명이 고을 경계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가마를 막아서고 말을 붙들며 앞을 다투어 가는 길을 위로하므로, 잠시 수레를 멈추고 수답(酬答)하였다. 금년 농사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큰 풍년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조금 낫다고 한다. 변방 백성들이 다소 심한 곤란을 면하게 되었으니, 반가운 일이다.²⁸⁾

27) 『영조실록』 102권, 1763년(영조 39) 7월 13일 무진 4번째 기사. 통신사(通信使) 정상순(鄭尙淳)을 김해(金海)로 정배(定配)하였다. 정상순이 어머니가 늙었다는 이유로써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꺼려하여 누차 계칙(戒飭)해도 명을 받들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 “명을 받은 사람이 모두 규피(規避)하고 있으니, 정상순을 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면려시킬 수 없다.”하고, 드디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조엄(趙曠)에게 대신하게 하였는데, 종사관(從事官) 홍낙인(洪樂仁)이 조엄과 친협(親嫌)이 있다는 것으로 김상익(金相翊)을 홍낙인과 대신하게 하였다[配通信使鄭尙淳于金海。尙淳以母老憚遠行，屢飭不膺命，上曰：“受命者皆規避，不罪尙淳則無以勵他人也。”遂有是命。以趙曠代之，從事官洪樂仁與曠有親嫌，以金相翊代樂仁。]； 『영조실록』 102권, 1763년(영조 39) 8월 3일 정해 2번째 기사. 통신 정사(通信正使) 조엄(趙曠), 부사(副使) 이인배(李仁培), 종사관(從事官) 김상익(金相翊)이 사괘(辭陞)하니, 임금이 소견하였다. 친히 이릉(二陵)의 송백(松柏)이란 글귀를 읊고 한동안 감동하였다가 이윽고 ‘잘 갔다가 잘 오라[好往好來]’는 네 글자를 어필(御筆)로 세 폭(幅)을 써서 나누어 주고 위유(慰諭)하여 보냈다[通信正使趙曠，副使李仁培，從事官金相翊辭陞，上召見之。親誦二陵松句，與感者久之，以御筆書下好往好來四字三幅，分賜之，慰諭以送。]。

28) 『해사일기』 1, 계미년(1763, 영조 39) 8월 20일(갑진), “萊州是余丁丑戊寅所莅之地。鄉人將校吏民縑徒累百人。來待境上。遮轎擁馬。爭問行路。暫爲停車而酬答之。問今年年事。雖未大登。比昨年稍勝云。邊民庶免顛連。可喜。暫憩十休亭。從事官已來到矣。同到五里程。府使鄭晚淳。陳威儀迎。國書於路次。仍爲前導而行。備陳渡海軍物及羅卒前排。三使具官服。員役各服其服。整齊班次。緩轡而行。入南門。左右路傍。觀者不知其幾千人。奉國書於客舍。親受府使延命禮。左水使沈仁希。釜山僉使李應麟來見。將校官屬以至妓輩並迎謁。皆前日使喚者矣。”

임추는 조엄을 ‘대대로 선덕(善德)이 있어 장상(將相)으로 출입하며 왕가를 위해 노력했고, 편할 때나 위험할 때나 한결같이 절개를 지켰다. 또한 담량(膽量)도 있어 남쪽 변방에 우뚝하니, 우리 동방에 큰 일이 생기면 공에게 맡길 만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영사단지의 마지막 장에는 범어사 스님 퇴은(退隱)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발문에 쓴 내용은 범어사 스님인 임추를 가르치는 금파상인의 서문과 본인의 발문에 조엄의 미덕을 기리되 편파 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어 흥미롭다.

범어사는 형세가 빼어난 이름난 사찰이며 관방에 위치해 있다. ... 중략 ... 공께서 범어사의 승군 폐단을 감영에 보고하여 그 중 두 초를 줄여 승려들을 안정시켜 주셨고, 또한 비변사에 보고해서 특별히 부채도 탕감해 주셨으니, ... 이미 우리 종백(宗伯)이신 금파상인(金波上人)께서 그 일을 드러내어 높이고자 서문을 지으셨고, 또 나로 하여금 그 전말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는 이미 신중한 요청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공께서 남기신 미덕을 기리되, 편파 되지 않았음을 말해둔다.

이 내용은 범어사에 전하고 있는 조엄의 또 다른 기록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조엄을 1808년 보다 무려 21년 앞서 언급한 한지 두루마리 한 장이 그것이다.²⁶⁾

2. 조선통신사 기록

50년이 흐른 이후이지만 조선통신사와 관련한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다. 보혜는 『화엄경(華嚴經)』을 공부하고 울암(蔚庵) 경의(敬儀)의 법을 이었다. 그 뒤에 범어사에서 한엽(漢曄)·병준(丙俊) 등의 제자를 가르쳤다. 보혜의 법맥은 체정(體淨)·도주(道周)·임추(任秋)·경의·보혜로 이어지며, 문집 1권이 전해진다.

26) 『낭백대선사행장(朗白大禪師行狀)』, 정미년(1787) 동짓달, 화담문인(華潭門人) 보월(普月), 범어사 성보박물관.

相國趙公巖革祛寺弊永世不忘壇’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새겨져 있고 글씨체도 전서체에 가깝다. 다만 『영사단지』에 표현된 단비에는 조공의 이름인 ‘엄(嚴)’자는 제외되어 있고 가장 하단에 새겨진 ‘단’자는 상단의 글자가 ‘순상국조공’과 좌우폭을 같이한 반면 중앙에 배치된 ‘혁거사폐영세부망’은 향 좌측으로 틀어져 새겨져있다. 중앙에 배치한 글보다 하단의 ‘단’자를 먼저 새겨 단비 전체의 길이와 조화를 각수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책보다 단비의 길이가 세로로 길게 제작되어 처음 계획을 수정하여 중앙배치로 새겨졌고 계획하지 않았던 조엄의 이름 ‘엄(嚴)’자를 작지만 새겨 넣어 후대에도 조공이 조엄 임을 확실시 하고 있다.

3. 후면 기록은 조엄의 업적에 대한 내용으로 영사단을 조성하고 불망비를 세운 이유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표 2> 후면기록 비교

『영사단지』단비의 후면기록	영세불망단의 후면기록
<p>公於乾隆丁丑秋 來蒞本府 以在境寺刹 皆爲山城 捍衛而彫殘 先除府中諸弊 越三年己卯春 移按嶺藩 萊境各寺義僧番價及本寺納左水管紙倉錢 報糶司革罷後 凡自水管責役者 一切蠲減 保障遠慮 既救殘寺 恤民餘澤 又單貧僧 今之居者 雖未能盡承 公願 傳聞盛德如雷灌耳 愈久愈感 別設此壇 以爲永頌永祝之地而 公之下車也我先君爲腐班領袖 故衆衲來問往蹟 請誌于余 余亦追感謹記以歸之</p> <p>嘉慶十三年戊辰七月上澆趙重呂拜手撰</p> <p>監役八道都糾正僧統 釋就治 時任都僧統 釋志有 和尚 釋道眼</p> <p>監役 前別將 金聲彦 刻人 襄成允 右手 趙仲一</p>	<p>公於乾隆丁丑秋 來蒞本府 以在境寺刹 皆爲山城 捍衛而彫殘 先除府中諸弊 越三年己卯春 移按嶺藩 萊境各寺義僧番價及本寺納左水管紙倉錢 報糶司革罷後 凡自水管責役者 一切蠲減 保障遠慮 既救殘寺 恤民餘澤 又單貧僧 今之居者 雖未能盡承 公願 傳聞盛德如雷灌耳 愈久愈感 別設此壇 以爲永頌永祝之地而 公之下車也我先君爲腐班領袖 故衆衲來問往蹟 請誌于余 余亦追感謹記以歸之</p> <p>嘉慶十三年戊辰七月上澆趙重呂拜手撰</p> <p>監役八道都糾正僧統 前同知 釋就治 時任都僧統 前叡祖 釋志有 和尚 釋道眼</p>

<표 2>에서는 <그림 4>에서 제시한 『영사단지』 단비의 후면기록과

범어사에 세워진 조엄의 영세불망단의 후면기록을 비교해 보았다.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영사단지』 단비의 후면기록에는 감역(監役) 전별장(前別將) 김성언(金聲彦)과 각인(刻人) 배성윤(裴成允), 석수(石手) 조중일(趙仲一)을 기록한 것이고 영세불망단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두 번째 차이는 관직명의 기록유무이다. 『영사단지』 단비의 후면 기록에는 생략된 중2품직인 ‘전동지(前同知)’와 정3품직인 ‘전첨지(前僉知)’의 관직명이 영세불망단에서는 확인되는 부분이다.¹⁵⁾ 관직명을 사용하여 ‘감역(監役) 팔도도규정(八道都糾正) 승통(僧統) 전 동지(前同知) 석 취흡(就洽)과 시임(時任) 도승통(都僧統) 전 첨지(前僉知) 석 지유(志有)로 새겨 넣었다. <표 2> 전문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공께서 건륭 정축년(1757) 가을 우리 동래부에 부임하셨을 때, 경내의 사찰들이 모두 산성을 방비하느라 지쳐있었다. 먼저 동래부의 몇 가지 폐단을 없애셨고, 3년이 지난 기묘년(1759) 봄에 경상도 감사로 옮겨 가셔서 동래 경내의 각 사찰의 의승번채(義僧番債)와 범어사에서 좌수영에 납부하는 지창전(紙倉錢)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혁파한 후 수영에서 요청하는 노역 일체를 감면해 주었다.

방비를 원대하게 생각하시되 피폐한 사찰을 구해 주셨으니,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택이 넘쳐 가난한 승려들에게까지 미쳤다. 지금 사찰에 거주하는 자들은 비록 공의 얼굴을 모두 보지는 못했지만, 크신 은덕을 전해들은 것이 마치 귀에 쏟아지는 우레 소리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감동되어 별도로 이 제단을 설치하여 길이길이 송축하는 곳으로 삼고자 한다.

공께서 부임하셨을 때 나의 선친께서 동래 서리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많은 승려들이 찾아와서 이루셨던 공적에 대해 묻고는 나에게 글을 청했다. 나 역시 추모하는 감회가 있어서 삼가 이 글을 적어서 돌려보낸다.

가경(嘉慶) 13년 무진(1808) 7월 상순, 조중려(趙重呂)가 절하며 적다.

감역(監役) 팔도도규정(八道都糾正) 승통(僧統) 석 취흡(就洽)

15) 송준호 집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승과(僧科)에 관한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승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료는 전하는 것이 없다.

외부 표면에 명문으로 새겨넣었다.²³⁾ 1757년 제작된 부산 범어사 목조는 조엄이 동래부사(1757. 7~1759. 1)직을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²⁴⁾ 이는 직접 조엄의 눈으로 범어사의 사정과 실태를 파악한 요인으로 보인다.

		
<p>부산 범어사 목조, 45.5×372.0×78.1, 나무, 1757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7호</p>	<p>범어사 목조 명문기록</p>	<p>『영사단지』, 안처택의 기록</p>
<p><그림 10></p>	<p><그림 11></p>	<p><그림 12></p>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범어사 승려 임추(任秋)²⁵⁾는 노래라 표현하고 시로 기록하고 있다.

소, 2009.; 조원영, 최원영, 『부산역사문화대전』, 『취정사터』. 취정사는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세운, 장안사(長安寺)·안적사(安寂寺)·선여사(船餘寺)와 함께 기장지역의 가장 규모있는 사찰이었다. 18세기 말기에 제작한 『여지도(輿地圖)』와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 확인 되는 바로 18세기까지 존속했던 사찰이었다. 『기장읍지』에 따르면 취정사는 기장 4대 사찰 중에서 장안사보다도 서열이 위라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 범어사 목조>를 제작한 사찰로 보아 그 규모 또한 짐작하게 한다.

23) 乾隆二十二年 赤牛十月日 鷲井寺 賈車

24) 『승정원일기』 영조 33년 9월 16일, 영조 34년 1월 4일 : 홍중효(洪重孝, 1708~1772)의 본관은 풍산(豊山), 호는 백서헌(栢西軒) 또는 소와(疎窩), 자는 성원(聖源)이다. 홍만기(洪萬紀)의 아들이다. 1740년(영조16)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 병조 좌랑, 사헌부 장령, 홍문관 교리 등의 청요직을 거쳐 외직인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지낸 후 1757년 대사간에 제수되었고 1758년 초에는 동부승지의 직을 수행하였다. 종이부역은 전 동래부사 홍중효 재임기간(1756.10~1757.7) 당시의 부역으로 짐작된다.

25) 『동사열전(東師列傳)』;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전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정, 『한국불교 인명사전』, 불교시대사, 1993. 임추는 보혜의 법맥을 이은 범어사 스님

년 경상도 관찰사가 된 조엄은 범어사의 실태를 비변사에 보고하여 부역과 빚을 탕감하였다. ‘매년 6월과 12월이면 부역 이행을 물어 채적과 매가 여기저기 낭자하고, 모두 짐을 이고 멘 채 서있었던’ 범어사 입장에서는 ‘매해 저치미(儲置米) 900석과 호조의 세삼(稅蔘) 4근을 오히려 받게 되었다’ 이는 범어사가 조엄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세 번째, 부역의 부담으로 흠어진 승군의 몫까지 떠안았던 문제이다. ‘본래 다섯 초(哨)를 이루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었다. 이 이후로 사찰에 속한 승려들이 줄어들어 본래 숫자도 맞추지 못해 근심거리가 된 것이 오래되었다. 공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감영에 보고하여 그 중 두 초를 줄여 승려들을 안정시켜 주셨다.’

네 번째, ‘좌수영 지창(紙倉)의 자금으로 범어사에 이자를 놓은 것이 800량이었는데, 승려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이자가 늘어나고 바로잡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²⁰⁾ 지창은 종이 부역²¹⁾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 조선후기 조정에 상납하는 종이부역을 주제로 다룬 영화 <혈의 누>(2005)가 생각나는 시집이다.

그런데 이 부역은 영화 속 내용이상이나 버겁고 무거운 부역으로 1757년 당시 종이 부역에 실제 사용한 유물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유물의 형태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구유의 생김새를 띠었으나 실사용은 종이 부역에 사용되었다. 유물의 명칭은 <부산 범어사 목조(釜山 梵魚寺 木槽)>이고 영조 33년(1757) 10월에 취정사(鷲井寺)²²⁾에서 제작하여 수레를 이용하여 범어사로 이운하였음을

시임(時任) 도승통(都僧統) 석 지유(志有) 화상(和尚) 석 도안(道眼)
 감역 전별장(前別將) 김성언(金聲彦)
 각인(刻人) 배성운(裴成允)
 석수(石手) 조중일(趙仲一)

<표 3> 범어사 승통¹⁶⁾

70대	취흡(就洽, 1년)	83대	보심(善心, 2년)
71대	유정(有澄, 1년)	84대	심찬(心贊, 1년)
72대	일능(日能, 1년)	85대	재민(再旻, 1년)
73대	덕충(德聰, 5개월)	86대	신정(信定, 2년)
74대	유정(有澄, 7개월)	87대	달홍(達弘, 1년)
75대	취흡(就洽, 1년)	88대	응신(應信, 1년)
76대	태성(泰性, 1년)	89대	진행(震行, 1년)
77대	득성(得性, 8개월)	90대	계신(戒信, 1년)
78대	태성(泰性, 4개월)	91대	지유(志有, 1년)
79대	희운(希允, 1년)	92대	선환(善還, 1년)
80대	지운(志允, 1년)	93대	의감(儀甘, 1년)
81대	재충(再摠, 1년)	94대	지유(志有, 1년)
82대	희운(希允, 1년)	95대	도안(道安, 1년)

『영사단지』에 이름이 기록된 범어사 역대주지는 취흡, 지유, 도안이다. 이들은 주지의 다른 이름인 승려가 통치한 시대로 해석되는 승통시대(僧統時代)이 승통들이다. 승통시대는 무려 166년간 177대 승통이 지속되었다. 이중 70대~95대를 살펴보면, 1808년 당시 승통은 취흡이다. <표 3>에 의하면 취흡은 70대 승통과 75대 승통을 역임하였고 화상 지유는 91대와 94대 승통, 화상 도안은 95대 승통을 역임 하였다.

4. 영사단(永思壇) 서문은 무진년(1808) 초겨울 승려 임추(任秋)가 지었다. 구성적인 면에서 다양한 형식을 갖춘 양식의 글이다. 서술식의 (1)

20) 『영사단지』 : 주상(순조) 9년 무진(1808) 10월 20일 고을사람 안처택(安處宅)의 기록; 가경(嘉慶) 13년 무진(1808) 7월 상순, 조중려(趙重呂)의 기록; 무진년(1808) 초겨울 상한(上澣) 부종수교(扶宗樹敎) 선교양종팔로총림(禪敎兩宗八路叢林) 승풍규정도총십(僧風糾正都摠攝) 금파(金波) 임추천유자(任秋天游子)의 기록.

21) 『영남영지(嶺南營誌)』 : 지창(紙倉)은 식리전, 둔전·저전(楮田) 수입을 가지고 장지(壯紙) 등 각종 종이를 담당하였다. 지통(紙筒)은 지창에서 종이를 가져다 관에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별조(別造)는 유황군의 납포 등의 비용을 가지고 화약·연환(鉛丸) 등을 제조하였다.

22) 『기장 옛길 학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

16) 『돌에 새겨진 범어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특별기획전시 도록, 2017, pp.124-125. 부산박물관 소장의 1923년 간행된 「선찰대본산 범어사 안내도」와 개인소장의 1947년 간행된 「선찰대본산 범어사 안내도」와 1923년 세워진 <범어사 사적비>를 참조했다.

범어사 입장에서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는 이내 (2) 조엄의 은혜에 감사함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사찰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히 경악할 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과 수심에 들게 한 것들과 해결이 필요한 폐막들을 일체 바로잡으셨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항심(恒心)을 갖게 되었고, 사찰은 거의 제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은 이어 『영사단지』조성에 대한 (3) 문답형 내용으로 이어진다.

황공하게도 국가를 위해 변방을 안정시키는 원대한 계획에 있어 누가 조공보다 뛰어난가? 우리 사찰의 대중을 불쌍히 여겨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바로 부모와 같도다. 오호라! 우리 사찰을 사랑하심이 깊고, 우리 승도들을 불쌍히 여김이 두텁기를 공 이전에는 나는 본 적이 없다. 대중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두 번 절하고 “그렇습니다” 하고는 나에게 그 사실을 글로 기록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공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고, 공의 덕이 너희 마음에 있으니, 너희들이 죽더라도 너희 자손들이 있고 공적은 비석에 적혀 있으니 따로 기록할 일은 없다. 또 공의 뜻도 이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니, 어찌 하겠느냐?” 그러나 모두 “공이야 일에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석연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개 평소에도 선행에 대해 들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묻고, 더러 그가 평생 좋아한 것을 따져 물어서 그의 사람됨을 상상해 봅니다. 가령 한 명의 사찰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생각을 하면 눈에 선하게 떠오르게 되니,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은 기록에서 본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보건대, 기록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라고 한다. 나는 더 따져 묻지 못하고 결국 기록을 남긴다.

(4) 조엄을 직간접적으로 간략히 정리한 내용도 있다.

공은 풍양 사람이다. 대대로 선덕(善德)이 있어 장상(將相)으로 출입하며

Ⅲ. 『영사단지』의 성격

1. 조엄의 범어사 승려구제

1808년 범어사는 조엄이 범어사에 부과된 세금과 승려들의 부역을 면제시켜 준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영사단지』를 기록하고 같은 해에 제단을 설치하고 그를 기리는 불망비를 세웠다.

『영사단지』에 적힌 조엄의 업적은 동래부의 폐단을 철폐한 것과 노역 일체를 감면한 것에 있다.

공께서 건륭 정축년(1757) 가을 우리 동래부에 부임하셨을 때, 경내의 사찰들이 모두 산성을 방비하느라 지쳐있었다. 먼저 동래부의 몇 가지 폐단을 없애셨고, 3년이 지난 기묘년(1759) 봄에 경상도 감사로 옮겨 가셔서 동래 경내의 각 사찰의 의승번채(義僧番債)와 범어사에서 좌수영에 납부하는 지창전(紙倉錢)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혁파한 후 수영에서 요청하는 노역 일체를 감면해 주었다.¹⁹⁾

이 책은 조엄이 베푼 은혜를 안처택의 글로 시작으로 조중례의 후면기록과 임추의 서문, 퇴은의 발문에 이르기까지 거듭 기록하고 있고 모두 범어사에 부과된 부역과 맞닿아 있다. 특히 종이부역과 관련된 내용은 네 차례나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가장 폐단이 심했던 부역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어사가 잡다한 부역과 관청의 물건에 대한 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동래부가 수만 냥의 돈을 범어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증식시켜 관용에 보태는 관행이다.’ 약 1년 반의 동래부사 소임을 마치고 1759

19) 『영사단지』 가경(嘉慶) 13년 무진(1808) 7월 상순, 조중려(趙重呂)의 기록.

공께서 전후로 사찰을 보호해 주신 은덕은 산처럼 높고 강물처럼 길어서, 무릇 승려된 자로서 누군들 공의 은덕을 억만세 뒤에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겠는가! 우리 범어사의 늙고 젊은 승려들이 오래되도록 잊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사찰 앞에 술잔 올릴 돌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힘을 다해 제단을 쌓고 비갈을 세워 산록에 빛나게 하고, 이름을 영사단(永思壇)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 종백(宗伯)이신 금파상인(金波上人)께서 그 일을 드러내어 높이 고자 서문을 지으셨고, 또 나로 하여금 그 진말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는 이미 신중한 요청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공께서 남기신 미덕을 기리되, 편파되지 않았음을 말해둔다.

무진년(1808) 초겨울 산인(山人) 퇴은(退隱) 등혜(等慧)가 삼가 발문하다.



범어사에는 조엄을 위해 만든 영사단에 4기의 불망비를 더 세웠다. 그 시작은 1808년 세워진 조엄의 불망비이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2기씩 세워져 있다.¹⁸⁾


18) <그림 11> 중앙에 세워진 조엄의 불망비 기준
 향우측 ① 관찰사 홍우길(洪祐吉) 고막영혁(痲瘼永革) 만세불망단(萬世不忘壇), 1860.
 향좌측 ① 부사 정현교(鄭獻教) 영혁폐막(永革弊瘼) 만세불망단(萬世不忘壇), 1860.
 향우측 ② 부사 정현덕(鄭顯德)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871.
 향좌측 ② 통정대부(通政大夫) 참서관(參書官) 장호진(張浩鎭)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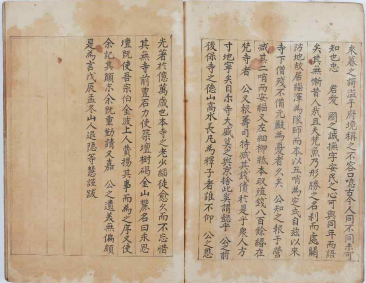

왕가를 위해 노력했고, 편할 때나 위험할 때나 한결같이 절개를 지켰다. 또한 담량(膽量)도 있어 남쪽 변방에 우뚝하니, 우리 동방에 큰 일이 생기면 공에게 맡길 만하다.

(5) 율시형식으로 조엄을 노래한 점을 들 수 있다.

昔公莅府 歲在丁丑 矜恤寺凋 事多反復 肅靜將事 威令迅速 越三己卯 移按嶺藩 減錢革弊 寺輔僧存 誦詠盛德 佛有靈言 昔公未來 期於寺屯 禾麻芘芘 積穀崇崇 嗟我僧徒 樂此寺豐 匪我私公 神人俱昌 立碑金岑 記跡流芳 天衣拂石 永輝山場	전날 공께서 동래부에 부임하신 것이 정축년 이었지. 우리 절이 힘든 것을 불쌍히 여겼으나 일이란 종종 뒤집어 지는 법 조용하고 엄숙히 일을 처리함에 위엄있는 명령은 신속하였네. 삼년 지난 기묘년에 경상도로 옮겨 가셨지. 세금을 줄여주고 폐단을 없애주니 사찰과 승려들이 보전되었네. 그 성대한 덕을 노래하니 부처께서도 영언(靈言)이 있었다네. 전날 공께서 이 곳에 오지 않았다면 사찰 둔전이 되었겠지. 밭에는 벼와 삼대 무성하고 쌓인 곡식은 높고 높다네. 아! 우리 승도들이여 사찰의 풍요로움을 즐길지어다. 우리만 공을 차지할 게 아니라, 귀신과 사람이 함께 창대하네. 금정산 자락에 비석을 세우고 자취를 기록하여 아름다움을 전하네. 천의(天衣)의 옷자락으로 스치듯 산속에서 길이 빛나라라.
---	---

5. 영사단지 발문

	<p>제목 부종수교퇴은당대선사지진 扶宗樹教退隱堂大禪師之眞</p> <p>찬문 悟添宗匠後 平素知 今茲惶榮示寂 登大老慈愧俞 心貳句 噫上天載無聲無臭</p> <p>居食他方 這箇言外別割 眉毛裝帶 系行筌蹄付授 弗殊樞衣擁帶 瞻仰拜候 後人戒悟拜冥</p>
<p><그림 7> 범어사퇴은당대선사진영, 비단에 채색, 128.4×91.0cm, 조선후기, 범어사 성보 박물관 소장</p>	

	
<p><그림 8> 영사단지 발문</p>	

옛날 유종원(柳宗元)이 유주자사(柳州刺史)가 되었을 때, 그 곳 주민들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예법으로 감동을 시키니, 3년이 되지 않아서 명령이 실행되고 불법이 금지되었다. 유주의 백성들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사의 뜻에 합치되지 못할까 두려워 그의 생각을 미리 헤아린 뒤에 일을 행하였다. 언제나 시행해야 할 기한이 되면 백성들이 서로 따를 것을 권하여, 이르거나 늦는 경우 없이 반드시 그 기한을 지켰다. 유주의 가난한 백성들은 남녀가 서로 저당 잡히고, 갚지 못하면 노예로 편입되었었는데, 자사께서

나라의 옛 법도를 따라 고용을 통해 본전을 공제해서 모두 벗어나 돌아갈 수 있었으니, 그 곳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가 정말 컸다. 자사가 죽자 유주의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여 그 일들을 돌에 새기고자 창려(昌黎) 한문공(韓文公)에게 부탁했더니, 한문공이 글을 지어 기록했다.¹⁷⁾

지금 우리 경상도의 전 순상(巡相)이신 조공께서도 이전 동래부사로 이 지방에 계실 적에 인정(仁政)을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하는 말마다 사람을 편안케 하며, 향유(鄉儒)와 승려들의 괴로운 폐단을 쓸어 없애 주었다. 염속도(廉叔度)가 늦게 부임했음을 탄식했던 촉군(蜀郡) 백성들의 노래가 우리 고을에도 넘쳤으니, 어떤 칭송도 입에 적합하지 못했다. 아! 고금의 사람들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지만,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성과 백성을 어루만져 안심시키는 마음은 가히 같다고 할 수 있겠으니, 옛 사람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또한 범어사는 형세가 빼어난 이름난 사찰이며 관방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거주하는 승려들이 군대에 뒤섞여 본래 다섯 초(哨)를 이루는 것이 정해진 규정이었다. 이 이후로 사찰에 속한 승려들이 줄어들어 본래 숫자도 맞추지 못해 근심거리가 된 것이 오래되었다. 공께서 이 사실을 알고 감영에 보고하여 그 중 두 초를 줄여 승려들을 안정시켜 주셨고, 또한 비변사에 보고해서 특별히 부채도 탕감해 주셨으니, 바야흐로 중생들이 마음이 편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찰이 크게 번성하여 아무도 겨를 자가 없었으니, 이 일이 버려두고 어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겠는가?

17) 『고문진보(古文眞寶)』 전편 230, 한유(韓愈)의 「유주나지묘비(柳州羅池廟碑)」 전 자사 유종원의 묘이다. 유종원은 유주자가 되어 그 곳 백성들을 촌스럽다 보지 않고 예법으로 감동시켰다. 3년이 되자 백성들은 각자 궁지를 갖고 분발하여 말하기를, “이 고장은 비록 장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도 역시 하늘의 백성들이다. 지금 하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어진 자사를 보내 주셨으니 만약 잘 교화 받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 것이다” 늙은이나 젊은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말해주고 하여 자사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 고장이나 또는 그들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는 모두들 말하기를, “우리 자사께서 들으시고 그 분 뜻에 맞지 않는 점은 없었는가.”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잘 헤아린 연후에야 일을 행하였다[故刺史柳侯廟也柳侯爲州不鄙夷其民動以禮法三年民各自矜奮曰茲土雖遠京師吾等亦天氓今天幸惠仁侯若不化服我則非人於是老少相教語莫違侯令凡有所爲於其鄉閭及於其家皆曰吾侯聞之得無不可於意否莫不付度而後從事].